



해외연수 수기

2010년 오리산업 선진국가 연수 수기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떠난 「2010 오리산업 선진국가 연수」.

세계 3대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 하노버 축산 박람회 관람부터 명품오리를 생산하는 프랑스 그리므드사 견학까지. 총 24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하나로 똘똘 뭉쳐 빼듯한 일정에도 오리산업 선진국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직접 보고 들은 연수자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해외연수 담(談)에 귀를 기울여보자.



최인호

(사)한국오리협회 감사

(주)매일건강 대표이사

오리산업 선진국 견학을 마치고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므드사는 종자 즉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부러운 회사였다. 순종오리 종자 계통의 보존, 연구, 개량을 선점하여 DB 관리 체계화로 그리므드는 세계 100여개 나라에 수출, 시장을 확보 점유하고 있다. 세계 식량은 강대국들의 무기화속에 식량 자원화의 피 튀기는 혈전을 통해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러한 식량 전쟁 열기는 금번 6박 8일간의 연수 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장시간 비행을 통한 피곤함을 뒤로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 하노버에 도착하여 EUROTIER 2010 독일 하노버 축산 박람회를 견학 하였다. 박람회 전시는 크게 양계·양돈·낙농·사료·바이오부분으로 분류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 우리와 가장 밀접한 양계부분을 주로 관람하였다.

산란, 육(종)계, 알 가공, 도계장비, 육가공기계, 부화기, 급(이)수기, 동물약품, 사료, 사료첨가제, 폐기물처리, 포장기등이 세계3대 박람회 명성에 맞게 전시 되어 마치 한 폭의 파노라마를 연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는 살아있는 박람회 전시였다.

하노버 축산박람회 관람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관람객 층이었다. 박람회장에는 초등학교생부터 대학생, 청년까지 젊은 관람객들이 많았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도 생각 이상 많았다. 이것이 유럽 국가들이 질살 수 있는 힘이자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우리 자식들이 박람회에 간다고 하면 소위 말해 “공부나 해”라고 큰소리로 야단치거나 만류했을 법한데 우리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현실이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도시집중 현상이 늘어날수록 농촌 인구의 고령화 또한 가속되었다. 농촌의 젊은 남녀가 도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농수축산업은 그들의

장래 직업에서 더 멀어져만 갔다.

이 현실이 우리 식량 사업의 현주소이자 선진 국가와 큰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노버 박람회를 무사히 마치고, 프랑스 그리므드사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자 20대로 보이는 대형 관광버스 여기사에 잠시 눈을 멈췄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이다.

시원스럽게 끝없이 펼쳐진 들녘을 뒤로 하고 프랑스 서부 지역에 위치한 그리므드사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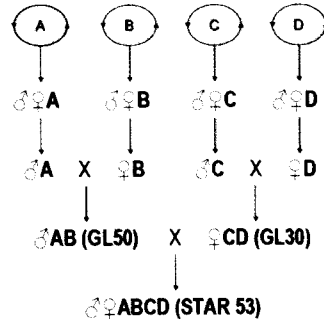
견학 방문단을 축하하는 의미로 게양해 둔 태극기는 그리므드사의 여유를 보여주는 듯 했다. 직원 1,500여명, 자산규모 7천7백만 유로에 달하는 회사 대비 그리 크지 않은 그룹사옥은 겸손해 보였다.

그리므드는 1950년에 설립, 생명공학·동물유전·번식부분을 핵심 사업으로 투자하여 100여개 국가에 분야별 현지화 또는 육종수출을 통해 영국 체리밸리사와 세계 양대 산맥을 이루는 회사로 성장했다.

세계종자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농산	축산	수산	기
세계	365	171	157	693
한국	4	4.76	1.58	10.34

※참고자료: 대신증권리서치, 국립종자원



※참고자료: 그리므드사 PL체계 제공

그 원동력은 바로 종자 원천기술인 동물유전, 번식부분의 Pure-Line 체계화 및 개량, R&D 투자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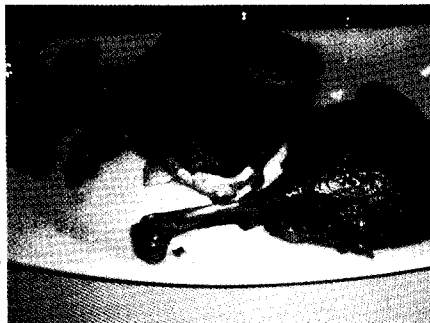
그리므드사는 독일에서 PL순종오리를 수입하여 지속적으로 개량 번식하여 산란율, 수정율, 부화율, 성장율, 성장기간, 육량, 지방량, 사료투입을 등을 기준하여 체계화된 원종오리GPS, 실용오리CD등을 개량 번식하고 있었다.

원종 농장은 철저하게 차단된 청정 지역으로 육종센터 내에 사료급이량, 급수량, 환기, 조도, 폐사등을 체계적으로 수치화 관리하는 중앙 통합제어시스템이 가동되어 모든 과정을 DB화하고 있었다.

독일 하노버에서 오리메뉴 식사, 프랑스그리므드사 견학 일정 종료 후 오리메뉴 현지 식사는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었던 오리진흙구이와 비슷하며, 한약 재료와 찹쌀 대신 각국 입맛에 맞는 향과 쏘스 차이 일뿐이었다.



▲독일 하이멜베르크성에서



▲프랑스 오리요리



▲폼마르드 언덕에서 회원들과 이현택(주금계 대표), 최인호(주매일건강 대표), 임종혁(태호농장 대표), 정지해(동화농장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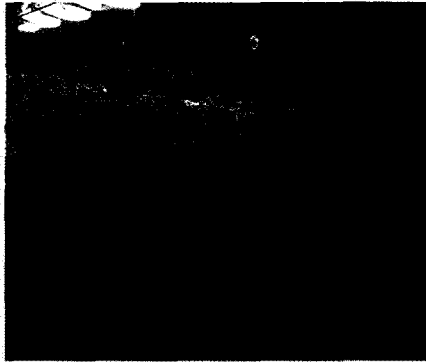


해외연수 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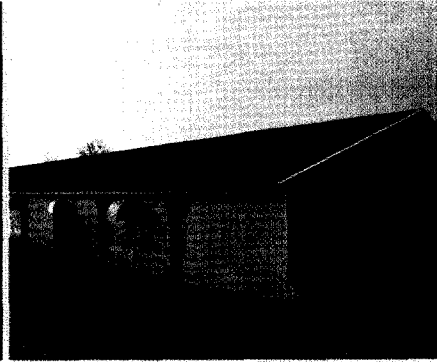
2010년 오리산업 선진국가 연수 수기



▲그리므드 부화장 견학



▲그리므드 페킨PS 농장



▲머스코비(Muscovy) 원종농장 전경



▲에펠탑에서 단체사진

다만 우리나라와 특별히 비교한다면, 음식에 오리 잔모털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정서로 볼 때 킴플레인 또는 불매까지도 생각 할 정도라 생각하며 털을 제거하면서 먹었지만, 그들은 그대로 맛있게 먹을 뿐 비위생적으로 보지 않는 음식 문화차이가 있었다. 언제가 문득 유럽 선진국에서는 식품 위해 요소 관리 기준이 육류별로 규정되어 있어 이 범주에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국민정서가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말 부러웠다.

하나는 젊은이 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축산산업으로 가업 계승 또는 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 직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종 종자 번식에 대한 원천 기술 보유로 고부가치 창출과 세계 종자 산업 시장을 장악 식량자원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특화시켜 선점, 사업화 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세계 각국이 우수 종자 확보를 위한 피 튀기는 혈전을 이미 돌입한 상태로 국내도 농수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에서 종자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신동력 사업으로 육성키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산물 종자 산업 비중에 비해 축산물 종자 산업은 한우를 제외한 전 육종이 거의 전무 할 정도로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전반적인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투자와 지원만이 국가 미래를 확보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해 본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준비해준 협회 관계자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 윤 도

(주)이목원 전무

오리산업 선진국 연수 日記

2010년 9월 말쯤 한국오리협회로부터 팩스 한 장이 날아 왔다. 오리산업 선진국 견학 및 연수에 관한 참가신청서였는데 협회의 경비지원이 있고 연수장소도 영국 체리밸리사와 프랑스 그리므드사였기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참가신청서를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다.

연수를 떠나는 날은 10월 18일이었는데 중간에 영국 체리밸리사 종오리 부화장의 질병 발생으로 영국일정이 취소되고 대신 독일 하노버 축산박람회 참관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지만 유럽 축산관련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은 들떠 있었다.

드디어 연수당일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님을 비롯 총24명이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했다. 다행히 빈자리들이 있어서 10시간정도 비행을 했는데도 큰 불편함은 없었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후 다시 하노버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다. 하노버에 도착하니 날씨가 흐리고 비도 약간씩 내리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해서 각자 방 배정을 받은 후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으로 독일식 오리구이요리를 와인과 함께 먹었다.

다음날 들은 얘기인데, 이곳은 예전에 오리가 많이 살아서 사냥터로 유명한 지역인데 이 레스토랑은 150년 정도 됐고 나중에 호텔이 생겼다고 한다. 오리가족을 심볼로 하고 건물 모양도 아담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 Mercure am enternfang 호텔에서 첫 번째 밤을 무사히 잘 보내고, 다음 날 아침 토스트와 요쿠르트, 잼 그리고 주스 등 소담한 식사를 마친 뒤 하노버 축산박람회장으로 출발했다. 우리가 참관하는 날이 박람회 마지막 날이라 방문객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수많은 인원이 박람회장을 가득 메웠다.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세계최대 축산박람회로 불리는 'Eurotier 2010'에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업체까지 포함 총 2000여개의 업체가 참여했을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건물 안에서 모든 박람회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필자가



해외연수 수기

2010년 오리산업 선진국가 연수 수기



▲연수 둘째 날 호텔 앞 단체사진



▲독일 하이델베르크 성에서



▲그리모드 로렌츠와 빈센트, 협회 회원들

방문한 건물만해도 10개가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이곳에서 소, 돼지, 양계 관련 축산 기자재, 품종, 약품, 첨가제, 사육장 시설, 사료공급장치, 바이오 에너지 등 국내에서 구경해보지 못한 새로운 트렌드와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쪽 분야는 무경험에 전문지식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단순 구경하는 차원이었지만 이미 축산분야에서 과학적이고 시스템화가 진행이 된 참여업체 및 농민들의 옷차림으로 보이는 관람객들의 눈빛에서 대단한 열의를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는 박람회장 안에서 식사를 마친 뒤 다시 버스를 타고 푸랑크푸르트로 향했다. 모두들 피곤해서인지 버스가 떠난 후 대부분 잠이 들었고 몇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한국식당에 도착해 김치와 된장찌개로 속을 풀 뒤 공항 근처 호텔로 가서 짐을 풀었다.

혹시라도 음식이 안맞아 고생하는 일행이 생길까봐 일부러 한식 메뉴를 선택해 준 오리협회의 배려가 엿보였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안에서 독일에 대한 가이드의 설명을 재미있게 들었다. 독일은 예부터 석탄과 철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였고 중세부터 기술자들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어서 기술이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과 융통성 없고 딱딱한 게르만 민족국가인데 주5일 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BMW회사와 같은 몇몇 기업만 주식회사이고 대부분의 회사가 유한회사 즉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다음날은 오후에 프랑스로 떠나기 전 남은 시간을 이용 독일 관광을 했다. 하이델베르크성을 방문했는데 국내 모항공사CF에 나왔던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역시 TV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게 훨씬 감동적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또 하이델베르크는 인구가 고작 16만명 정도인 작은 중소 도시인데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6명이나 나왔고 대학생이 주민의 4분의1이 될 정도로 온 도시가 대학 도시라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하이델베르크성에 올라가는데 트램을 타고 올라가는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거 같다. 성안에서도 볼거리가 많았고 가이드의 여러 가지 설명이 뒤따랐다.

처음 트램을 탔던 곳까지 내려와 아주 특별한 돈까스를 맛볼 수 있었다. 서빙하는 직원이 키가 180센티미터가 넘는 거구였는데 전달, 누님, 총각, 노총각, 솥총각, 이런 말을 한국말로 똑같이 능청스럽게 말하면서 식사접시를 건네 우리는 크게 웃으면서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식사 후 공항으로 이동 드디어 프랑스로 향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도착해 공항근처 호텔이 숙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또 한국음식을 먹으러 시내로 나갔다가 다시 호텔로 들어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협회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조금씩 맞으며 프랑스 대표 상징물인 에펠탑, 개선문, 샹젤리제거리, 몽마르뜨 언덕과 규모가 꽤 컸던 성당, 그리고 루브르박물관 등을 둘러본 뒤 다시 호텔로 돌아와 드디어 그리므드사가 보내준 버스를 타고 솔레시티로 향했다.

다음 날 그리므드사로 이동해 회사대표의 아들이면서 부사장이라는 분을 통해 회사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므드그룹은 동물유전 및 생물약제와 관계된 생명과학분야에서 제품개발을 하는 회사이며, 동물육종 특히 육계와 산란계, 돼지, 오리, 토기, 비둘기 등의 종축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약제분야는 사람과 동물건강에 필요한 백신, 바이오약제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주력이고 특히 전체매출의 대부분을 오리사업분야가 차지한다고 했다. 다음 그리므드사의 본부 및 유럽, 미국, 중국에 위치한 연구실 소개 그리고 전 세계 공급 계약된 지역소개 등을 들을 수 있었고 오리는 2009년 기준 GP 포함 PS까지 160만마리 이상 판매했고 총 5000만마리를 판매해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된다고 했다.

매출은 2억유로이며 여러 자회사 인원 포함 1500명의

직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므드사가 사업전략으로 삼고 있는 7가지 기본 가치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장소를 옮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점심을 와인과 함께 먹었다. 여기서 부화장 및 발생장을 처음으로 봤고 대략적으로 부화하는 과정과 부화된 알을 선별하는 과정 등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종오리사육 전문가를 통해 회사 연혁과 함께 육종 오리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 사육하고 사육장내부시설, 종자개량을 위한 암컷과 수컷실을 따로 분리해 가장 우수한 종자들을 선별하는 과정들, STAR53을 키우는 일수에 따라 종량 및 오리가 낳는 알의 수량 비교 등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하기에 난해한 내용이었지만 소중한 경험이었다.

저녁은 BRASSERIE GRAND CAFE란 곳에서 그리므드 회장님과 낮에 프리젠테이션 해줬던 부사장 및 관계자 두분이 자리를 함께 해주었고 와인을 직접 따라주고 건배를 권했을 정도로 우리 일행에게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덕분에 편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고 그리므드사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걸 느꼈다.

다음날 아침 그리므드사 PS농장이 있는 Lachapelle Blanche St Martin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버스 운전은 그리므드사 여자 직원이었었는데 운전을 너무 잘해서 신기하기도 했고 존경심도 들었다.

PS농장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광활한 땅을 보유한 프랑스답게 주변 20만평정도 농사도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는 6~7명 씩 조를 나눠 차례로 위생복을 갖춰 입고 농장에 들어가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종오리만큼 세심한 배려와 함께 오리들이 스트레스를 안



해외연수 수기

2010년 오리산업 선진국가 연수 수기

받게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했다. 냄새가 좀 심하게 많이 났던 기억이 난다.

농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프랑스식 전통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했고 그리므드사의 배려로 근처 유명한 고성인 Chenonceau Castle을 관광했다.

유명한 곳인지 일본 관광객도 단체로 관람하는 모습이 흥미로왔다. 관광도 잘 마치고 다시 솔레시로 향했다. 몇 시간을 달린 후 저녁에 도착해서 중국집 뷔페 식당인 판다차이나에서 식사를 했다. 호텔로 돌아와 한국오리협회 이상호 회장님이 그동안의 연수과정을 설명해주셨고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바라는점 및 미흡했던 부분들도 언급할 시간도 가졌다.

유럽을 알고 공부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넓은 세상을 접하고 또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안목을 키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속으로 되새기면서 설명을 들었다. 뭘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하는 열정을 갖고 연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파리 시내로 나갔다. 오페라극장 근처 한국식당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자유관광시간을 가졌는데 파리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각각 유용하게 시간들을 보내고 난 뒤 우리는 약속시간

에 모여 버스에 올라탄 뒤 공항으로 향했다. 그리므드사는 끝까지 우리 일행을 공항까지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줬다.

마지막 인사를 손흔드는 것으로 끝내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정도로 다시한번 그리므드사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열시간의 비행 후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고 몇몇 분들의 검역문제 때문에 전체 작별인사는 못하고 몇몇 분들하고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이렇게 6박8일간의 연수를 모두 마쳤다.

이번 연수를 통해 느낀점은 개인적으로 안목을 넓힐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또한 국내 오리산업도 더 큰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 사업분야에 국가적관심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그와 연계된 설비투자업체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오리축산업분야의 생산성을 높였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오리요리 음식개발로 오리육류소비가 늘어나야 한다는 명제도 숙제로 남았다.

끝으로 이번연수를 위해 수고해주신 참가일행 모두와 한국오리협회 이창호회장님을 비롯해 그리므드사 관계자, 허관행님, 이양선님, 축산신문 이희영님 그리고 통역을 맡으신 조수연님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동검란기



▲그리므드 부화장



▲'그리므드'사의 프레젠테이션



김 현 중

(주)정다운 소장

독일 하노버 축산박람회 및 프랑스 그리므드사 견문록

한국오리협회 주관으로 “프랑스, 독일 선진농가 연수”라는 주제로 공문이기도 착했다. 평소에 유럽으로 꼭 한번 견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연수에 매우 큰 기대를 했다. 주로 육용오리 사육관리 및 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 나로서는 평소 잘 접하지 못했던 종오리 견학이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배움의 기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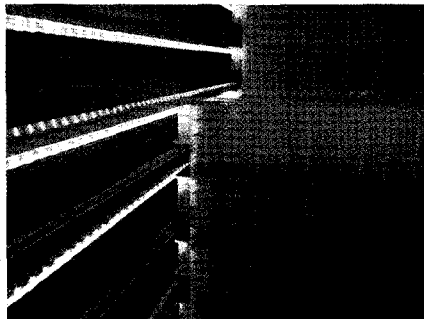
또한 명성이 자자한 세계축산박람회가 연수 일정에 잡혀 관람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설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드디어 출국 날, 나를 포함한 24명의 참가자가 인천공항에 집결했다. 한국오리협회의 공지사항 및 일정안내를 듣고 곧바로 비행기에 탑승,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높고 힘차게 날아올랐다. 기내에서 3편의 영화를 보고 잠까지 청했으나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독일은 대략 13시간 정도 하늘을 날고서야 땅을 밟을 수 있는 먼 나라였다. 도착한 연수단 일행은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다음 날부터 시작될 연수를 기대하며 잠을 청했다.

1. 독일 하노버 축산박람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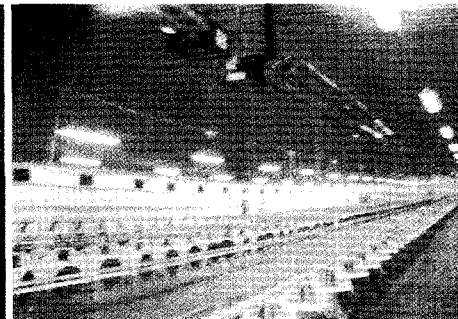
독일 숙소에서 꿀맛 같던 밤을 보내고, 드디어 첫 번째 일정 독일 하노버 축산박람회장으로 이동했다. 축산박람회는 하노버 메세에 위치, 약 45개국의 참



▲독일 하노버 축산박람회장



▲〈HATCH BROOD〉사의 발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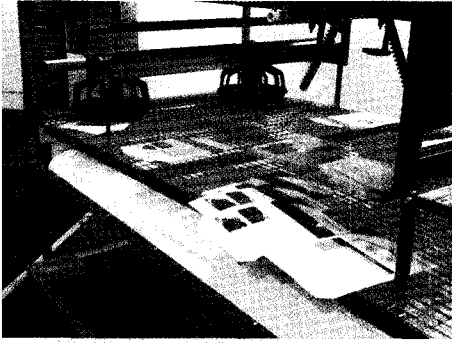


▲〈Roberts gordon〉사의 열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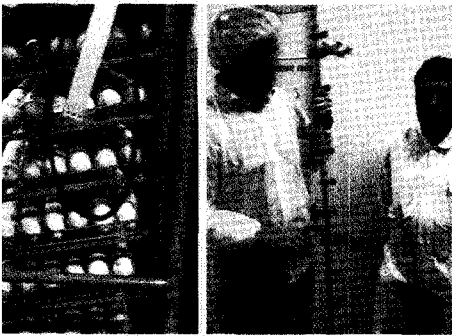


해외연수 수기

2010년 오리산업 선진국가 연수 수기



▲〈NTS Klimmaboden〉사의 육추시설



▲그리므드사 발육기

가, 14만 명이 관람객을 자랑하는 축산인의 축제로서 축산박람회 중 굉장한 규모로 자리 잡혀있다. 하노버축산박람회는 축산생산설비, 사료저장/제조, 축산건축물을 비롯하여 냉/난방기술, 환경기술 및 액세서리 부품까지 축산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규모를 자랑했다.

많은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선진기술을 관람했지만 HATCH BROOD(발생기 전문업체사, Roberts gordon(축사내 열원 설비 업체), NTS Klimmaboden(축사 보온깔짚 및 공중 육추 시설 업체)가 특히 관심이 갔다.

첫째로 내 시선을 잡아 끈 선진기술은 HATCH BROOD사의 발생기. 발생기간이 다른 초생추에 대한 약추발생율을 제어하는 기계로 급수라인 및 사료라인이 발생기내에 설치되어 있어 먼저 깨어난 초생추도 급이·급수를 충분히 하게 됨으로써 입추를 할 때까지 약추 발생을 제어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로 Roberts gordon에서 개발한 열원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육추동 및 육성동에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업체의 경우 열원기를 축사 천정에 고정시켜 전체적으로 열을 고루 분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싼 시설비가 단점으로 작용한다.

셋째로 NTS Klimmaboden사의 공중 육추시설 업체이다. 이업체의 경우 축사바닥에 물관을 설치하여 깔짚대신 보일러 형태로 바닥을 따뜻하게 하여 온도를 조절하고, 슬러리형태로 배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체이다. 축사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효과를 기대하지만, 시설비면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을지 의문이 들었다.

독일 하노버축산박람회를 비롯한 독일 여정을 마치고 우리 일행은 프랑스로 이동했다. 프랑스에 있는 그리므드사는 우리나라에 종오리를 수출할 뿐만 아니라 부화장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번 견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컸던 곳이다.

2. 그리므드사

현재 체리밸리사와 함께 우리나라 PS를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 그리므드사에 도착했을 때 생각했던 것만큼 규모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PL(Pure line)축사와, P.S (Parent Stock) 축사가 갖춰져 있고, 위생상태 및 환경은 그 어느 곳 보다 뒤지지 않아 이런 환경 때문에 회사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많은 것을 배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므드에서 첫째 날 세미나실에서 회사 소개 및 비전 등 그리므드사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튿날 그리므드사의 부화장을 견학 하게 되었다. 그리므드사 부화장은 기존 우리나라에 있는 부화장과는 큰 차이점은 없었으나, 종란세척과정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종란을 차아염소산과, 소다를 적정수준 첨가하여 세척을 하지만 그리므드사는 세척과정이 없었다. 그리므드사측은 종란을 강제적으로 세척하면 종란을 감싸는 큐티클이

벗겨지고 그 시점에 세균이 침투한다고 말을 덧붙였다. 한편 그리므드사는 이를 보완하기위해 종란이 발육기에 들어가면 16일에서 26일 까지 42℃ 물로 세척함으로써 현란 발생율을 감소시켜 우수한 초생추를 발생한다고 했다.

이렇게 6박8일간의 독일 및 프랑스 선진농가 방문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뿌듯함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타지에 나가면 고국에 대한 간절함이 짙어진다고 했던가? 평소 지긋했던 쌀밥과 김치가 연수 일정 내 지극해졌다. 고국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던 연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농가방문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여정을 보람있고 알차게 준비해주신 이창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오리협회 임직원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주)정다운, (주)제이디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므드에서의 만찬



▲독일 하이델베르크성에서 단체사진